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29호

성령강림 후 일곱째 주일

2020년 7월 19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성령의 빛 | 정명오 편집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사랑의 주님께 찬양드리나이다(D. Buxtehude)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채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43장(즐겁게 안식할 날)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강림 후 일곱째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고전 6:11),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요 4:24).

회 중: 아멘.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살살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회 중: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목 사: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회 중: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목 사: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회 중: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목 사: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회 중: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목 사: 내가 저 동녘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회 중: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
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시 139:1-10).

경배찬송

338장(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욥 2:12-13)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요일 1:9).

응답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경동찬송 12장) 다함께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침묵의 기도

.....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 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 하신(대하 7:14)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할렐루야(경동찬송 6장) 다함께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2번)

말씀

구약의 말씀

창세기 28:10-19a 1부: 차형태 집사
2부: 이재학 집사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피 준 하나님ियो,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피 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

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 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 곳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게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1절 **다함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서신의 말씀

로마서 8:18-25 **1부: 정성휘 집사**
2부: 김필연 권사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2절 **다함께**
 생수되는 주의 말씀 먹고 살아라 우리 삶에 기쁜 샘이 솟아나리라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13:24-30 **목사**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에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밭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밭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밭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3절 다함께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둔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여정성 장로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특송 · 특주 생명의 양식(Cesar Franck) 1부: 김홍태 집사

내 영혼의 은총 입어(J. M. Black) 2부: 최정현 집사

설교 “함께 자라는 밭과 가라지”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411장(아 내 맘속에)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경동찬송 37장) 다함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L. Mason)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교우소식

▶장례: 故 임기남 성도(향년 61세 / 임성환 교우 부친 · 주우현 교우 시부, 5일(주일) 소천, 7일(화) 발인)

2. 서울노회 임시노회(제118-2차) 안내

▶노회총대: 목회자, 조규곤 장로, 강혜정 장로, 장용준 장로
▶일시와 장소: 30일(목) 오후 2시 세광교회

3. 다음 주일(7월 26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김강중 장로	1부	강형규 집사·이경옥 권사	2부	김경호 집사·이미경 집사	

특별봉헌 7월 5일

감사헌금

강미연(감사), 경혜현(생일), 김기현(감사), 김동준(6월 감사), 김범수(감사), 김상훈 · 강기원(감사), 김선아(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지켜주심), 김수평 · 임문규(범사에 감사), 김인원(감사), 김정애(감사), 김하균 · 김수지(결혼 감사), 김형규(감사), 박세은(은혜와 보호하심), 박종호 · 정희락(감사), 방효정 · 권대영(감사), 신호진(십일조), 안지민, 안성민(감사), 윤성진, 이승자, 이승옥(故 한정숙 권사 추모), 이강송 · 채해림(십일조), 이규량 · 홍기순(감사), 이영일 · 정정애(감사), 이일순(아들 생일), 임복기 · 최경자(범사 감사), 임창복 · 이영분(감사), 조준영 · 박세진(늘 지켜주심), 채수일 · 김경숙(범사 감사), 무기명(감사)

지정헌금

탈북자지원헌금
김병태 · 김수미

■ 예배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누가복음서 13:24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누가복음서 13:24, 29-30	좁은 문	박재준 전도사
중·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누가복음서 13:22-30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누가복음서 13:22-30	구원으로 가는 길	박선교 목사

주일예배(1, 2부) 참여방법

사전접수: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사무실(T. 02-2274-0161)

주일예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찬송가와 성경책 개인 지참

개인 마스크(KF80 이상 권유) 필히 착용 후 입장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

주일예배 영상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다음 주일 말씀

7월 26일(성령강림 후 여덟째 주일)

성 경: 구 약(창세기 29:20-28)

서신서(로마서 8:35-39)

복음서(마태복음서 13:31-33, 44-52)

설 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채수일 목사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1.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부르네
2.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올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3.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부르세 아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갑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후 본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411장 아 내 맘속에

1.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닦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2.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3.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 날이와 주를 만나 뵈는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후렴) 주가 항상 계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시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경동찬송 37장)

1.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그 이름 그 나라 땅위에 오소서 거룩한 그 이름
2. 일용할 양식 주소서 거룩한 그 이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거룩한 그 이름
3. 유혹을 멀게 하소서 거룩한 그 이름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거룩한 그 이름
4. 나라와 권세와 영광 거룩한 그 이름 하늘 아버지께 있도다 거룩한 그 이름
5.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그 이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그 이름